

2020년 9월 28일

HSBC, 삼성화재해상보험의 4개국 투자포트폴리오 관리 글로벌 보관은행으로 선정

HSBC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하 "삼성화재")의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시장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관리하는 글로벌 보관은행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HSBC는 9월 중순에 미국, 유럽, 일본에 투자된 삼성화재의 해당 채권 자산을 성공적으로 인수하였으며, 이에 앞선 지난 5월에는 삼성화재가 위안화 적격 외국인기관투자자(RQFII) 라이선스를 통해 중국 자본시장에 처음으로 직접 투자했을 때, 그 절차가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한 바 있다.

삼성화재 자산운용본부 관계자는 "HSBC가 중국 시장을 잘 알고, 중국 진출에 필요한 과정을 고객 입장에서 처리해 준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HSBC와의 관계를 다른 시장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벤자민 오헤르 HSBC 아태지역 세일즈 및 고객관리, 보험 및 공공 부문, 증권 관리부 총괄은 "HSBC와 삼성화재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상징하는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다년간 한국 기업 고객들과 거래해 온 HSBC의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삼성화재에 탁월한 보관업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정은영 HSBC 코리아 대표는 "HSBC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오랜 신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HSBC는 한국 경제의 동반자로서, 광범위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선도적인 은행 서비스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국내, 해외에서 모두 성공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HSBC 코리아 증권관리부는 해외 투자자들의 한국 자본시장 투자, 한국 투자자들의 해외 시장 투자에 필요한 보관은행 업무를 제공하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다양한 한국 고객의 해외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탁월한 보관은행 업무 서비스를 인정받아, 더 에셋(The Asset) 매거진이 선정하는 국내 최우수 보관은행(2012-2020) 상을 다년간 연속적으로 수상했다.

ends/more

보도자료 문의

서현진 부분부장 02-2004-0882 hyonjinsuh@kr.hsbc.com

This news release issued by
HSBC Korea

HSBC

HSBC는 한국에서 은행지점과 증권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홍콩상하이은행은 HSBC 그룹의 창립 멤버이며, HSBC 그룹은 유럽, 아시아, 북미, 남미, 중동 및 북아프리카 64개 국가 및 지역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0년 6월 30일 기준 HSBC 그룹의 자산은 2조 9천 2백 30억 달러로, HSBC는 세계 최대 은행 및 금융 서비스 기관 중 하나이다.

HSBC 증권보관 및 수탁업무

HSBC는 전 세계적으로 증권 보관 및 수탁업무에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펀드 수탁, 일반사무관리, 글로벌 및 국내 증권보관/펀드 수탁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